



The Nursing Ti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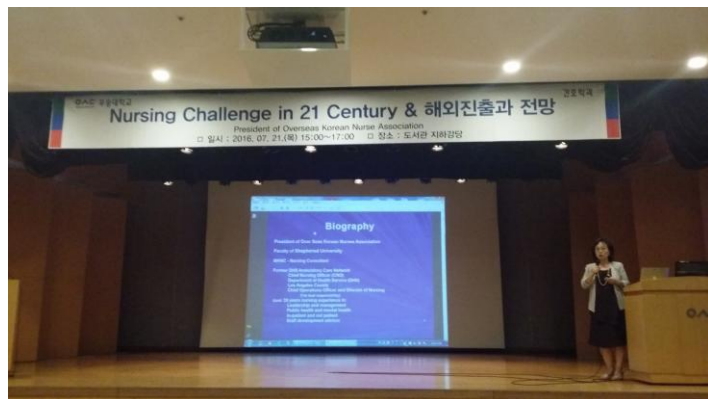
Sol-Times 10th Edition
회장 김유빈 dbqls0506@naver.com
기사부장 이호은 aness002@naver.com
사진부장 고남의 skadml1103@naver.com
발행부장 최은비 chldmsql89@naver.com
총무 진윤정 yoonjung4665@naver.com

VOL. (07.01~07.31)

Published on 08.11.2016 Copyright © Sol-Times

Nursing Challenge

21세기 간호사 해외진출과 전망 특강



2016년 7월 21일 목요일 3시부터 5시까지 도서관 강당에서 재외한인간호사회 회장 권 모니카 사무총장의 특강이 있었다. 특강은 강사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 21세기 간호사 해외진출과 전망, 미국 간호사가 되기까지의 과정 순으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모니카 권 강사는 이전에 보건 서비스 외래 치료 네트워크, 수석 간호 장교(CNO), 보건 서비스 부(DHS) 관련 일뿐만 아니라 리더십, 경영, 공공보건, 정신건강, 입원 환자, 외래 환자 등 39년 동안 여러 분야를 통섭하는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강은 미국의 외래진료 네트워크, 의료 복지 서비스 및 복지 혜택과 더불어, 한국과는 어떻게 다른지, 또 간호사 해외진출이 얼마나 유망한 지에 관해 소개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글로벌 간호사라는 꿈을 키우는 학생으로서 더 넓은 방면으로 나아가기 위한 큰 동기부여가 되었던 시간이었다.

이호은 기자/ 고남의 사진

Buddy Buddy 경진대회



2016년 7월 5일 사회복지융합관 시청각실에서 버디버디 경진대회가 진행되었다. 버디버디란 2학년 멘토와 1학년 멘티가 팀을 이뤄 신입생들의 학교 생활적응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13개의 버디버디 팀들이 출전하였으며 각 팀들은 지난 4개월 동안 함께한 활동들을 개성 있고 알차게 UCC에 담아 발표하였다. 팀워크, 참신활동, 우수봉사 등 총 5개의 항목에 대해 우수한 면모를 보여준 팀들에게 각각 상장과 장학금이 수여되었다. 특히 가장 호응도가 높은 팀에게 주어지는 우수멘토멘티상은 멘토 황은지 학생이 이끄는 '7번 방의 선물' 팀이 수상했다. '7번 방의 선물'팀의 멘티 엄정은 학생은 "버디버디 활동을 통해 언니들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졌을 뿐 아니라 학교생활에 좀 더 쉽고 즐겁게 적응할 수 있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진윤정 기자/ 이윤진 사진

Freshman Seminar 졸업생 특강

준비하는 자의 꿈은 이루어진다.



2016년 7월 1일, 보건의료과학관에서 간호학과 1학년을 대상으로 졸업생 특강이 이루어졌다. 이 특강은 학생들에게 간호사가 병원간호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게 하여 간호사에 대한 견문을 넓히기 위해 이루어졌다. 1기 졸업생으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일하다가 현재는 미군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남경희' 간호사가 특강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이번 강의를 통해 그간 궁금하지만 해결할 수 없었던 질문들을 할 수 있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윤성화 기자/이윤진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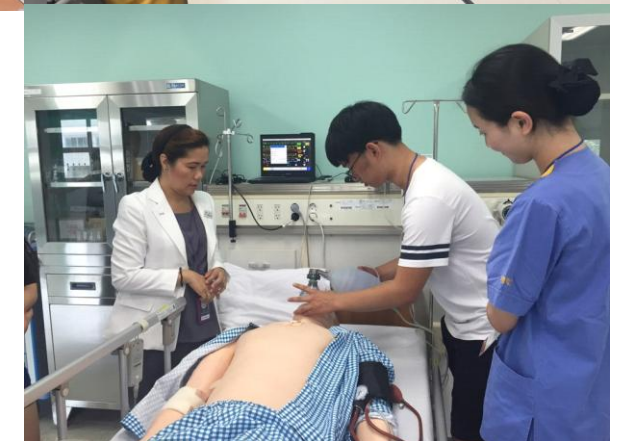
의료통역 온라인학습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은 7월 동안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마련한 의료통역과정 온라인 강의를 수강했다. 여러 강의 중 특히 러시아어과정은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수강했다. 1학년 고영선 학생은 "이번 강의를 통해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회화구문들을 다양한 언어로 배울 수 있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진윤정 기자

미래 간호 꿈나무들의 우송간호 체험기

미리 가보는 대학



2016년 7월 9일 우송대학교에서 3차를 마지막으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과 별 전공체험 프로그램 '미리 가보는 대학'이 진행되었다. 간호학과 전공 체험은 모의 병원 'Sol-Hospital'에서 간호 술기 및 시뮬레이션 체험을 하고 글로벌 간호 인재를 지향하는 우송 간호의 외국인 교수님들께 러시아어, 아랍어, 중국어, 영어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간호학과 교수님, 재학생과의 대화 시간을 끝으로 행사가 끝났다. 참여한 학생은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계기로 더욱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전했다.

- 우주희 기자·사진

